

박근혜 파면... 도민들 "촛불의 승리" 환호

오후 6시30분부터 마지막 도민 총궐기 갖고 축하 퍼포먼스 등 진행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읽자 전북 전주 걷고싶은거리에 모인 시민들은 두 팔을 번쩍 들었다.

시민들은 "촛불이 이겼다", "민주주의를 되찾았다", "어둠을 물리쳤다"고 목이 터져라 외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일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시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를 부둥켜 안고 제자리를 방빙 돌았다.

주말마다 촛불집회를 주최해 온 전북시국회의는 회원들을 끌어 안으며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몇몇은 박차오르는 감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한 동안 말을 잊지 못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실감했다.

전북시국회의는 곧바로 이 자리에서 '현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전북시국회의는 "박근혜 파면 선고는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 낸 국민들의 승리"라며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나라의 품격을 더럽힌 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전주시 걷고싶은거리에 모인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자 만세를 부르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내려졌다.

대한 엄청난 책임으로 파면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현재 선고를 이끌어 낸 촛불혁명은 제국주의 침략에 항거해 맨손으로 일어났던 3·1 독립선언부터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 군부독재를 타도한 6월 항쟁을 잇는 국민의 자랑스러운 혁명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한 번

도 스스로 해야 할 몫을 마다한 적 없는 우리 국민은 무한한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전북시국회의는 지난 11월부터 촛불집회로 도로가 통제돼 불편을 겪은 전주 걷고싶은거리 상인들에게 꽃을 나눠주며 감사의 인사를 대신했다.

이날 전북시국회의는 오후 6시30분부터 마지막 도민 총궐기를 갖고 현재의 탄핵 인용에 대한 축하 퍼포먼스와 공연 등을 진행했다.

전북시국회의의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도 주말마다 민주주의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거리에 나선 시민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국제교류 첫 물꼬 텄다

한국전통문화전당-말레이시아 페낭시, 간담회 열어

한국전통문화전당과 말레이시아 페낭시 문화기관이 국제교류를 위한 첫 물꼬를 텄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은 최근 세미나실에서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세계유산센터(George Town World Heritage Incorporated, GIWHI) 방문단을 맞아 '국제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태지역 무형유산 NGO기관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 주관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는 오태수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을 비롯, 사무국장과 팀·실장,

엔밍체(Ang Ming Chee) 조지타운 세계유산센터장, 니싱니(Ng Xin Yi) 문화유산담당 행정실장, 티코양(Ti Koh Yang) 동남아회의 담당자 등 말레이시아측 6명, 박원모 유네스코아태 무형유산센터 교류협력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조지타운 세계유산센터에 대한 각 기관 소개 및 주요사업 안내, 각 기관 간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당 전시실과 홍보관, 한지산업지원센터 투어의 시간으로 꾸며졌다.

지난해 NGO컨퍼런스 행사 이후 두

번째 전당을 방문했다고 밝힌 엔밍체 조지타운 세계유산센터장은 "전당과 저희 센터가 같이 협력해 공동으로 사업들을 모색하고, 또 저희 센터를 홍보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저희 센터가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공동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유산센터측은 이날 전당에 오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세계유산센터 주최의 '조지타운 전통놀이 & 게임 행사' 참여 제안을 전달했으며 전주의 전통문화 공연과 유무형의 작품들이 말레이시아 전역에 홍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혜은 기자

이별통보한 여자친구에 칼 들고 위협한 20대 검거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칼을 들고 쫓아간 20대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김모씨(21,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여자친구 A양(19) 이별을 통보한 것에 A양이 보는 앞에서 그의 인형을 흉기로 찌는 등 위협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기 싫어서 화기에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갔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전주 3·13 만세운동 기념식

신흥고~풍남문 광장까지 태극기 흔들며 시가행진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분연히 일어섰던 독립을 염원하는 함성이 전주에서 다시 울려 퍼졌다.

광복회 전주지회(회장 오인탁)가 주최한 '전주 3·13 만세운동 기념식'이 11일 광복회원과 보훈단체 회원, 학생,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흥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 삼창 등을 통해 98년 전 그날의 함성과 조상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겼다. 또, 기념식에 이어 신흥고등학교에서 풍남문 광장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시가행진을 전개했다.

풍남문광장에서는 독도는 우리땅

플래쉬 몹, 3·13 만세운동 재현극 사진전시회 등이 진행돼 지난 1919년 3월 13일 당시 전주 3·13 만세운동을 재현했다.

오인탁 광복회 전주지회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비극이 반복된다"라며 "나라 잃은 설움과 일제의 폭압 속에서 분연히 일어섰던 조상들의 정신을 되살려, 올바른 역사관과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주 3·13 만세운동은 1만여명이 참여한 전북도내 최대 규모의 독립만세운동으로, 서문교회 김인준 목사와 신흥학교·기전학교의 학생들이 주축이 돼 지난 1919년 3월 13일 전주남부시장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됐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지역농업인에 신기술 보급키로

전주시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농업인에게 신기술을 보급키로 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는 올해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농업단체 대표 8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도입 목적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의 세부 추진내용과 유의사항, 보조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사례위주로 진행돼 참석 농업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27개 사업에 20억여원을 확보해 농촌진흥청 산하 시험·연구 기관에서 개발된 신기술 보급과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참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가회를 실시하고,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집중 논의해 기술수준 향상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28일 전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시범사업 참가 농업인을 선정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지역농업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기술교육에 나설 계획"이라며 "농업인들이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개최

전주시는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군부대, 경찰서 등 통합방위 주요기관장과 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1분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통합방위협의회의에서 시는 지난해 실시했던 전주시 통합방위태세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와 올해 통합방위태세 추진방향에 대한 계획을 보고했다.

전주2대대로부터 KR/FE 훈련준비 및 협조, 군사대비태세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참석 기관장 및 단체장들은 향후 통합방위태세의 발전방안과 협조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지역안보태세 확립을 공고히 하고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실 관계자는 "요즘처럼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시점에서 열리는 통합방위협의회의는 더욱 더 뜻깊다"라며 "올해에는 통합방위 능력을 더욱 높임으로써 비상대비태세 유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